

연중 제29주일  
전교주일

기도서 462면 (C해)

제1독서 : 출애	17, 8-13
제2독서 : II 디모	3, 14-4, 2
복음 : 루가	18, 1-8

#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하느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 데도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루가 18,7).

강론



## 성서적 인간

김 동 준 신부

일반적으로 성서를 대하는 태도는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①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입장을 고집하고 편견에 따라서 본문을 취사선택하여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와 ② 성서의 본문 메시지를 각색없이 수용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변혁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경우이다. 진정한 회개는 말씀으로의 회귀(回歸)를 말한다. 성서는 인격수양을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말씀이다. 말씀은 곧 하느님의 생명이며 진리이며 사랑이다. 따라서 말씀이 육화(肉化)된 예수를 영접한다는 일은 구원과 직결된다.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에서(루가 10,40) 배울 수 있고 주님은 “마리아가 택한 몫”을 인정하셨다(루가 10,42). “어떻게 하면 목마르지 않겠느냐? 그 물은 사마리아 여인”(요한 4,15)의 물음에 말씀으로의 초대를 하시며 그레야 “영적으로 침뚫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바로 지금이 그때임을 강조하시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요한 4,23)고 말씀하신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절박한 한 과부의 입장을 예화로 들면서 끝까지 매달리는 자세를 배우도록 촉구하신다.

사랑은 결단이듯이 신앙은 말씀 안에서의 결단의 삶이다. 주님은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마태 5,37) 하고 말씀하셨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울로가 강조하듯이 “하느님의 사람은 성서를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되고(II 디모 3,17) 그렇치 않고서는 많은 경우 잘못되어지는 일들, 예를 들면 냉담, 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하는 처사,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 사람들을 상처입게 하는 일 등...이런 것은 모두 “너희가 성서를 모르기 때문이다”(마태오 22,29) 하신 주님의 책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

화분 속의 화초는 그 생명의 사활(死活)문제가 물주는 사람의 의지와 물조리개 끝의 방향에 달려있다. 우리는 어떤 냇가를 치루더라도 대지에도 뿌리를 내릴 일이다. “야훼께서 주신 법을 닦으로 삼고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 철 따라 열매 맺으리”(시편 1,2-3). 바람이 소슬하고 별이 영롱한 독서의 계절이다. 웃음을 머미고 「말씀」을 접할 때이다.

(사목국장)



## 스위치를 켜라

「이게 난장판이지, 어더 국회인가!」-정회를 선포하는 국회의장의 따끔한 한 마디.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야당의원들의 대정부 질문 때문에 정가가 시끄러웠다. 거기다가 어이없게도, 야당의 전매특허(?)처럼 알려진 퇴장 사태가 여당쪽에서 있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소란한 가운데 진행되던 야당의원의 발언 도중에 마이크의 스위치를 끄기도 했다.

대화는 민주정치의 기본이다. 이 대화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대화의 첫걸음은 제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땅의 정치인들은 어떠한가? “내 생각은 이렇다.”-“질어 치워라. 그따위 소리는 의법조치해야 한다.”-“이렇게 하자.”-“안된다.” 이게 무슨 대화고, 정치한다는 사람들의 자세란 말인가! 보수정당끼리의 대화가 이 모양이라면, 남북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는 고향지르기와 샷대질하기 대회가 아니다. 고향지르고 샷대질하는 일은 시정잡배들이나 할 일이다. 우리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판을 가끔 본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표현대로, 국회가 난장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아무리 대의정치가 정당정치라고는 하지만,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형극장이 되어서도 안된다.

지금은 의사당의 마이크 스위치를 켜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적어도 국회에서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발언들이 쏟아져야 하고, 또 그것들을 진지하게 새겨 듣고 대화해야 한다. 국회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그 일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면책특권(제81조 참조)을 국회의원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활성화 될 때, 민주주의는 꽃핀다.

## 숲 정 이 산책



기금이 부족합니다

# 성 명 서

1.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임무는 민주 조국을 건설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적 여망인 개헌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벽들이 가로놓여 있으니, 언론자유와 철폐나 인간 존엄성의 침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이에 양식있는 시민들은 일찍부터 편파와 왜곡을 일삼는 KBS에 공정한 보도를 촉구하며, 민주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의 하나로 TV 시청료 거부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그러나, KBS와 그 주관 부처인 문공부의 자세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는 실로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3. 특히 최근의 민주 언론 운동 협의회가 천주교 정의 구원 사제단의 도움을 입어 발표한 「권력과 언론의 음모」, 「권력이 언론에 보내는 비밀 통신문」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다. 이제, 설마했던 언론 통제의 실상을 알게 된 우리는 KBS 시청료 거부운동의 사명감을 절감하고 공동 대처하고자 한다.
4. 우리는 우리 조국의 내일을 위하여, 불공정한 보도와 일방적인 정부 홍보만을 자행하는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 운동에 뒤따르는 어떤 압력이나 회유에도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며 다소의 희생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5. 우리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동참의 의지로 삼으며, 시청료 문제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구 평형 사무국(0652 ②2935)으로 연락해 주시고, 본당 사무회 차원에서도 합심하여 대처하기를 당부한다.
6. 끝으로 우리는 최근에 자행되고 있는, 가톨릭 농민회 활동에 대한 탄압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외국 농축산물 수입 반대의 뜻을 당국에 밝히고, 교형자매의 동참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1986년 10월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 □성서교실 ⑥

## 하느님께서...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루가 18:7).

이 비유(18:1-7)는 「밤중 벗의 비유」(11:5-8)와 비슷하다. 둘 다 인간이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 기도는 가끔 야뿍강에서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을 했던 것(창세 32:24 이하)에 비유되고 있다. 인간의 열심이 하느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함은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실은 합당치 않은 말이다. 하느님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언제나 이것을 인간에게 주실 힘(力)과 사랑(愛)을 가지고 계신다(마태 6:7-8).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결코 인간이 바라거나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느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사도 바오로는 말하고 있다(로마 9:16).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태세를 인간이 준비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아니 인간의 원의(願意)에 반(反)해도 하느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다.

묵시록 6:9-11절에는 「피의 복수」가 언급되고 있는데, 박해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 초대 신도들은 고통에서 구원되어, 영원한 평안(平安)에 들어갈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렸으며 또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루가가 이 비유로 세말 예언의 최후를 장식한 것은 참으로 그의 재능을 드러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볼 수 있겠느냐?」(18:8).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좀 모순처럼 들릴지 모른다. 이것은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참다운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한다. 우리는 사업과 영웅적인 순교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다(루가 10:20 참고).



### 대리점 및 사원모집

저희 회사는 겨울용품 취급업체로서 적은 자본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인기 개발 품목입니다. 신자(형제) 여러분의 많은 문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리점지역 이리, 군산, 남원, 정주, 김제, 부안

- |      |    |                          |
|------|----|--------------------------|
| 간부사원 | ○명 | 내근을 할 수 있으며 소정의 재력이 있는 분 |
| 부녀사원 | ○명 | 활동능력이 있으며, 초보자 환영        |
| 영업사원 | ○명 | 마케팅 및 세일즈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   |

※ 아르바이트 남·여 대학생 환영(전북거주자)  
전주시 인후2동 1572-7 ☎ 75-1936

(주) 삼 성 사 양 베 드 로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 고려 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바로 서원 옆

☎ 72-5770

김 홍균(베드로)

사  
원  
모  
집

# 교 구 소 식

- ※ **축! 건진(26일)**: 수류천주교회, 시간-10시30분, 주례-박정일 주교
1. 사제 어머니 모임: 20일 12시, 장소-강덕행 신부님 어머니님 댁(신수당)
  2. 설소자 모임: 26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내용-영화 포름
  3. 착한 목자 수녀회 설소자모임: 대상-성소에 관심이 있는 미혼여성  
 때-26일(매월 비제주일) 2시~5시, 장소-가톨릭센터  
 연락처-서울 성동구 성수2가 5~8 전화 (02) 463-8055
  4. 전주교구 '86 청년대회 순회강연
    - ①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을 맞는 전주교구의 오늘과 내일, 강사-김진소 신부(호남교회사 연구소장), 일시-27일 오후 8시, 장소-군산 팔마천주교회
    - ② 민족 현실과 가톨릭인의 사명, 강사-한용희 교수(전주 평회회장, 숙명여대) 일시-29일 오후 8시, 장소-이리 창인동천주교회
    - ③ 가톨릭 청년운동의 자세와 나아갈 길, 강사-계정주 신생(막사이사이상 수상자) 일시-31일 오후 8시, 장소-전주 덕진천주교회
  5. 한국 가톨릭 농민회 창립 20주년 기념대회: 일시-11월 3일 오후 2시  
 장소-서울 명동성당, 주제-「농민 해방과 민족통일을 향하여」  
 제1부-기념미사, 제2부-기념대회, 제3부-문화잔치
  6. 전화번호 변경안내: 광주 대교구청 이전에 따른 새 교구청 신설 전화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일부 사용일은 10월 9일부터입니다. 전화 (062) 525-9004~9006
- ※ **축! 영명**: 십자가 성마오로(19일) 김준호 신부님 축하합니다

## 10만인 성지순례(오후 2시~5시)

일		코스: 전주 순정이 → 치명자산		코스: 여산 순정이 → 천호 순교자묘지	
일	요일	담당신부	봉사자	담당신부	봉사자
19	일	최상범 신부	김성균·이영미	윤양호 신부	연규식·양민우
25	토	김기수 신부	전중희·이명숙	고경훈 신부	김진면·김혜경
26	일	백영근 신부	연규식·양민우	권익복 신부	김성균·이영미

※ **가정기도 독서**: 시편 119: 14~19 요한 6: 27~29

### 잡 관!

☆ **교구 사제피정 시작**,  
 “날로 더욱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봉사하기에 유익한 연장이 되고 자신이 대리하는 그리스도의 완덕을 보다 더 잘 따를 수 있게...”(사제적무교령 12).  
 교구 신부님들의 연례 피정이 시작된다. 교구에서는 사제들의 영적인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교구내 전 사제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씩 사제피정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이번 가을 피정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4박 5일) 광주 교난회 명상의 집에서 윤공희(광주 대교구청) 대주교님의 지도로 실시된다. 우리 신부님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중에 기억하자.  
 또한 이 기간동안 미사대신 본당 사목회 중심으로 말씀전례를 실시- , 사제들과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번 피정기간 동안의 위급한 성무집행은 교구청 사목국에 즉시 연락, 대기중인 신부님의(최상범, 윤양호 신부님) 도움을 받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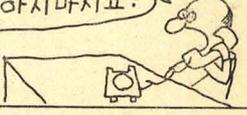
☆ **사랑의 주춧돌-부안본당 반석회**  
 반석회- , 그야말로 본당의 커다란 주춧돌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 모임은 부안본당(주임: 권영근 신부) 사목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자들의 작은 모임이다.  
 평소엔 자신들의 용돈을 아껴 모은 기금으로 본당의 어려운 일들을 돕고, 앞으로 장학회도 만들 예정이라고, 특히 회원들 중에 약사, 치과의사들이 있어 틈틈히 공소를 방문,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무료로 투약과 치료치료를 해오고 있다. 치료봉사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성가도 가르치며 소외된 공소 신자들에게 대한 본당 관심의 뜻을 다하고 있는 이 반석회는 앞으로 활동의 범위를 더욱 넓혀 선교활동을 위해 비신자에게도 실시할 예정이란단다.

## 요심이 (689) 김병오

대검의 인천사태조사발표는 크게 보도하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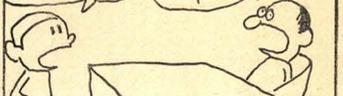
야당의 고문사태발표는 보도하지마시요!



KBS-TV 시청료 관계 기사는 쓰지마시요!



이곳이 무엇하는 곳이요? 정부의 홍보정책실 이요



\*훈수(회갑)웃감 | 도매상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튼지

### 서울주단

☎ 0453 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 부안 신영근치과의원

원장: 신영근  
 (프란치스코)  
 ☎ 2-6390  
 부안 시외버스터미널 옆  
 현대상호مج고 2층

## 김안과의원

부설: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렌즈  
 원장 김호열 · 전은주(베로니카)  
 전주 코아백화점 옆 · 중앙성당 앞  
 전화 74-3020

## 이경내과의원

내과전문의 이경(안젤라)  
 효자동 삼거리  
 ☎ 6-7188

제1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기 곤 석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1. 오늘은 전교주일입니다: 전세계의 전교사업을 위해 2차헌금과 회비를 납부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전교사업에 협조합시다
  2. 교구사제 연중피절: 21일~24일, 본당에 미사없음 신부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있으시기 바랍니다
  3. 레지오단원 1일피절: 28일 오전 9시~오후 5시 준비물-겹집·복주·미사수건
  4. 재속형제회 웰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5. 유아영세식: 25일 오후 3시 대부모님을 모시고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6. 본당 미사시간 안내  
월-새벽 6시, 화-오전 10시30분·오후 7시,  
수-새벽 6시, 저녁 7시, 목-저녁 7시,  
금-새벽 6시, 저녁 7시, 토-새벽 6시·오후 4시,  
일-새벽 6시, 오전 10시30분·오후 3시·오후 5시·저녁 7시30분
  7. 교무금 납부의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약속한 교무금을 년내에 완납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합시다
  8. 개량메주 판매: 성전전립을 위해 본당에서는 대구 갈멜수녀원에서 생산하는 메주를 판매합니다
  9. 공소 순회미사: 25일 저녁 8시, 황윤리공소
  10. 성령피절: 25일 1시~27일까지 준비물-성서·성가집, 참가비-2천원
- 지난주 봉헌금: 교무금: 228,600원  
지난주 신축금: 770,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오늘은 전교주일: 2차헌금
1. 사제피절: 20일~24일, 21일~24일까지 본당미사 없습니다
  2. 사목회: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3. 유아세례: 25일 저녁미사 전(6시30분)
  4. 삼회(재속형제회): 다음주일 오후 2시
  5. 어린이 성지순례(주일학교): 25일 오후 1시30분  
순정이~최명자(국교 3~6학년생)  
본당 어린이미사 없음, 준비물-미사준비
  6. 대학생회: 매주일 오후 5시30분
  7. 청년성가대 성가연습: 매주일 오후 6시30분 남녀 청년들 참가바랍니다
  8. 목주기도 10만단 봉헌: 누계 10,085단
  9.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 공사헌금  
30만원-황만금, 10만원-홍성순·김봉남, 6만원-박광수, 5만원-허계석·한기임, 3만원-이명·한성순·익명·고인순·김영환·신재철, 2만원-송철수, 1만원-이명·익명, 5천원-임인순·김행자·서희근  
계-895,000원, 누계-26,072,000원
  10. 감사: 익명-4인용 식탁, 율로살리아-국화화분 2개 차클라라-국화화분 2개, 형은실-벽시계(강당)기증
  11.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유영귀 ②오정수  
봉헌-김수영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송아가다, 독서-①최창기 ②강만춘  
봉헌-김동균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79,350원 교무금: 461,55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 ※ 오늘은 전교주일: 특별헌금 있습니다
1. 축! 영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 추수감사제 및 우정의날: 공식미사 후 서로서로 나눔으로 형제애를 더욱 굳게 합시다
  3. 신부님 피절: 20일~24일, 광주 명상의 집 이 주일 동안의 미사예배는 오늘까지 접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라고 많은 기도 드립니다
  4. 본당 올드레아: 22일 저녁미사 후

5. 청년회 성가연습: 매주 공식미사 후 청년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감사: 순정이는 은인-최명순 1구좌, 화분 4개 증정-로사리아씨, 카바-서울 박테레사, 복사북 8벌-서울 박솔리아나·서울 정마리아
  7. 축! 결혼: 19일 12시30분 이민형·최명순(마리아), 가톨릭센터 3층 강당
  8. 순정이는 은인을 구합니다
  9. 겹친신청서: 다음주일까지 접수 완료 바랍니다
  10. 환영! 전입: 서장원 이리 신동에서 용암리로
- 지난주 봉헌금: 11,3580원 교무금: 78,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환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규  
수녀원 2-2276

1.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식: 23일 10시 미사후에 있습니다
  3. 가정분문: 15만-22일 오전 9시30분
  4. 청년성가대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30분 성가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여바랍니다
  5. 감사: 임재순-15처 기증, 윤데레사-성모상(8만원) 부제님 성좌(12만원), 박재마-성모상(10만원), 원일순-부제님 제의(20만원)
  6. 금주전례  
본 당: 해설-김배근, 독서-①장현주 ②장기호  
봉헌-유용산 부부  
2성당: 해설-박병환, 독서-①정형석 ②오수환  
봉헌-김필수 부부
  - 차주전례  
본 당: 해설-고정수, 독서-①유용산 ②김한기  
봉헌-남정호 부부  
2성당: 해설-함문권, 독서-①김희영 ②강수중  
봉헌-김나식 부부
- 지난주 봉헌금: 본당-286,630원, 2성당-103,960원  
계-390,590원 교무금: 182,000원

(선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레지아사무실 83-5085원

- ※ 50주년헌금심입: 다음주일까지, 한 세대로 빠짐없이 신입합시다(신입명단-지면사정으로 게시판에 게시)
1. 오늘은 전교주일: 특별헌금 있음  
10월 전교의 말을 맞이하여 1사람씩 교리반에 인도합니다
  2. 성화회: 공식미사 후
  3. 레지아: 오늘 오후 2시
  4. 9월 13일 영세자 첫교백성사: 25일 오전 11시, 오후 7시
  5. 주일학교 어린이 운동회: 26일 오전 9시~오후 4시 성신학교 운동장, 자모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 주일학교 자모회비 1달에 1천원입니다  
1월~10월까지 사무실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수요일-오후 7시30분, 토요일-오후 5시  
일요일-오전 11시
  7. 감사: 대형 스테인드글래스(정창희·이성숙 부부), 스테인드 글래스(유아네스·유발바라 자매-각 50만원)
  8. 다음주는 50주년 특별헌금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29,150원 교무금: 503,00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1. 사제피절: 20일~24일, 평일미사·수요성서강좌 없음 "피정하시는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
  2. 성가대 간부개편: 단장-김순주, 부단장-최정은, 총무-김미자, 봉사부-서금순·김점순, 지휘자-유인숙, 반주자-황현숙
  3.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미사시간 변경: 19일부터  
①새벽미사-6시 ②저녁미사-7시
  5. 글라라회: 제의장 기증(17만원) 감사합니다
  6. 유아세례: 26일 10시
- 지난주 봉헌금: 623,210원 교무금: 398,000원